

# 북한의 보건실태

## (Health care in North Korea)

발표자 :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유진벨 재단

본인은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배려로 1997년 1월에 유진벨 재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유진벨 재단은 1985년 한국에 장로교 선교사로 파견되어 이 땅에 묻힌 외증조부 벨목사를 기념하여 1995년에 설립되었다.

그 동안 북한 식량지원을 위한 모금활동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작년 한해 동안만 해도 7,000톤의 식량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유진벨 재단에게 의료사업의 기회가 주어졌다.

모친 인애자 순천기독교결핵재활원장이 지난 30여 년간 전남 순천에서 결핵요양소를 운영해 온 가족적 배경과 본인이 의료인인 관계로 97년 7월에 두 번째 방북부터는 결핵예방병원과 요양소 등을 돌아봄으로써 결핵사업에 국한되기는하나 북한의 보건실태를 접할 수 있었다.

북한은 60년대 말에 이동엑스선차량 70대를 도입하여 전국적인 결핵예방사업을 시행, 75년도에는 결핵퇴치를 자부할 수 있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해일과 두 해에 걸친 홍수 피해 그리고 가뭄으로 이어진 자연재해는 식량사정을 더욱 더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영양결핍에 의해 결핵과 같은 전염병의 만연을 가져왔다. 환자의 입원치료와 예방사업을 하던 각 도의 결핵예방병원의 이동엑스선 차량들은 노후되어 순회검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시내에서 떨어진 곳들에 위치한 요양소들에는 검사를 위한 시약과 결핵약이 부족한 상황이다.

1997년 9월 19일 북한 보건부부장의 명의로 결핵예방과 치료에 유진벨 재단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과 함께 결핵병원 1개소, 도 단위 결핵예방병원 12개소, 군 단위 결핵요양소 60개의 명단을 보내와서 현재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의료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치료용 결핵약과 아직 발견되지 못한 결핵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이동엑스선 차량, 간접촬영 필름, 검사시약 등이다. 북한 보건당국자들은 유진벨 재단에서 요구하는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측에서 지정한 요양소 방문 허락은 물론 약품분배 확인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결핵사업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건강한 통일 한국을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사업으로 간주된다.

북한 국민의 영양 상태 향상은 이러한 결핵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보건상태를 향상시키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오늘 발표 내용은 이러한 개념을 함께 하는 지역사회영양학회 회원들에게 1997년 이후 유진벨 재단이 북한에서 결핵사업을 수행하며 접했던 북한의 보건실태를 소개하고자한다.

## 주제와 관련된 토의자의 의견

장 남 수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오늘 대한영양사회가 추계학술대회의 심포지움 제목을 "통일한국을 대비한 영계 개발"로 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통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식량수급과 영양실태 문제를 파악하는 일, 주민의 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일은 남한의 식품영양학자들의 연구과제라고 생각하는 본인은 하루 빨리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아지고, 주민들, 특히 영유아와 아동의 영양과 건강상태가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토론에 임한다.

꼭 2년 전 1998년 11월 18일에 이화여대 가정대학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연변연구센터에서는 "북한의 식량문제와 영양상태"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오늘 주제 발표자로 참여하시는 인요한 선생님 이외에 여러 분을 모시고 강연과 토의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1년 전 1999년 7월에는 저희 학교 연변센터와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으로 "북한 어린이의 영양문제: 실태와 대책"이라는 제목의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이는 북한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를 영양학, 식품학, 아동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문학, 농학, 인류학 등 범학제적인 측면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했던 모임이었다.

적절한 영양은 우리 삶의 근본이며, 개인 뿐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건강과 안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식량난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성장률이 높고 따라서 에너지와 영양소 요구량이 높은 아동에게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내 영양불량은 그 파급효과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북한이 지난 수년간 겪었던 규모의 극심한 식량난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적어도 1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각 부문별로 남북한 경협을 유도하고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원활한 경협 활동과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주민의 영양과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일이다. 영양불량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은 에너지 섭취량이 이미 한계결핍상태에 있는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본인은 KDI 북한경제연구팀장과 함께 북한의 식량난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바 있다. 식량난 이후 북한 주민의 에너지 섭취량은 적어도 20% 이상 감소되었으며, 북한의 노동 생산성과 생산량을 13% 저하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이 기간 중 북한 경제규모 축소의 30%가 에너지 섭취량 감소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협을 통해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영양부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적극적인 영양개선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영양감시체계를 개발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제 남한에서는 여기 계신 영양학자들의 수년간의 노력으로 영양감시체계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지난 98년에는 임상영양상태조사를 포함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을 포함한 영양상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영양조사를 실시하는 일, 모니터링해야 할 건강 영양문제의 선별, 감시체계의 운영을 담당할 기관을 만드는 일, 지속적인 영양감시체계를 위한 새로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신 김초일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토의를 마친다.